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베트남-

2026. 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출장 결과	3
1. 코트라(KOTRA) 하노이 무역관	3
2.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8
3. 베트남 국세청	13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베트남은 최근 고도성장과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조세·재정제도 정비, 세무행정 현대화, 산업정책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 변화와 정책 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관련 정책 분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이에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국세청, KOTRA 등 주요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조세·재정·세정 분야의 제도와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조세제도 분석, 재정정책 평가 등에 활용하고자 함
-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회를 방문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법률안 검토 및 예산안 심사 과정 등을 조사해 우리나라 국회 제도와 비교하고, 최근 경제·재정 분야 주요 현안 등을 파악
- 베트남 국세청을 방문하여 베트남 국회와 국세청 간의 협력 구조, DTI법(Digital Technology Industry Law) 발효에 따른 암호화폐·디지털 자산 과세 논의 상황, 외국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및 국세청의 중점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조사
- 베트남 KOTRA에 방문하여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을 살펴보고, 베트남 진출기업의 사업 현황 등을 청취
- 베트남 하노이 주재 관련 협회인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자와의 면담으로 현재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및 조세행정 등을 청취

2. 출장자

- 박연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장
- 박지원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추계세제분석관
- 신미정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추계세제분석관보
- 강아름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추계세제분석관보
- 강신영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행정실무원

3. 출장 일정

날 짜	주 요 내 용
12.14.(일)	○ 출국 (인천 → 베트남) ○ 자료 정리 및 기관 방문 준비
12.15.(월)	○ 코트라(KOTRA) 하노이 무역관 방문 및 면담 ○ 하노이 주재 관련 협회(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면담
12.16.(화)	○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방문 및 면담 ○ 베트남 국세청 방문 및 면담
12.17.(수)	○ 귀국(베트남 → 인천)

II. 출장 결과

1. 코트라(KOTRA) 하노이 무역관

가. 기관 개요

-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는 한국의 수출 진흥과 해외 투자 유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으로, 전 세계에 여러 무역관을 운영
 - 하노이 무역관은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코트라는 베트남에 하노이 무역관, 호치민 무역관, 다낭 무역관 운영
 - 주요 업무는 한국기업의 베트남 수출 확대 및 투자 진출 촉진, 현지 시장 정보 및 비즈니스 전략 지원, FTA 등 통상 정책 활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업무 수행
-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담당자 이외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베트남 주재 관련 담당자와 최근 베트남의 조세정책 변화 및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 현안 등을 논의

나. 면담 개요

- 면담 일자 및 장소
 - 일자: 2025. 12. 15(월)
 - 장소: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 면담자
 -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조상재 부관장, 김경돈 팀장, 유상철 과장, 소라 차장
 - 한국무역협회 강현우 소장
 - 중소기업중앙회 한시훈 소장
 - 서우회계법인 베트남(SEOU Vietnam Accounting Company Limited, 본사: 하노이) 조성룡 회계사

다. 주요 면담 내용: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 베트남 경제 및 무역·투자 동향 설명

- 베트남은 2024년 기준 명목 GDP 4,685억달러이며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7.09%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교역 및 산업 생산 증가, 관광업 개선, 지속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연도별 GDP(억달러): (‘22) 4,064.5, (‘23) 4,333.6, (‘24) 4,684.9
- 2024년 기준 수출은 4,055억 달러, 수입은 3,808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역 교역규모는 15.5%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9년 연속 흑자를 달성
 - 연도별 교역규모(억달러): (‘22) 7,302, (‘23) 6,810, (‘24) 7,863

□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 및 투자 동향

-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베트남의 교역국 순위 3위로 2024년 기준 투자 규모는 약 815억달러로 전체 베트남 교역규모의 10.4%를 차지
 - 한국과의 교역규모(억달러): (‘22) 864(11.8%), (‘23) 760(11.2), (‘24) 815(10.4)
-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규모는 2024년 기준 70.6억 달러로 싱가포르(102.1억 달러)에 이어 2번째로 큰 투자국이며 투자 분야는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
 - 2024년 대 베트남 투자현황: 싱가포르(102.1억달러), 한국(70.6억달러), 중국(47.3억 달러) 순임
 - *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규모(억달러): (‘22) 48.8, (‘23) 51.3, (‘24) 70.6
 - 2024년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주요 산업별 투자는 제조가공업 분야(70.2%), 전력,용수 생산 및 판매업(14.1%), 부동산경영업(6.0%) 순임
- 지난 36년간(1988년~2024년 말)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규모는 총 920억달러 규모(총 10,102개 프로젝트)로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
 - 분야별로는 제조 가공업의 누적 투자금액이 687.5억 달러 규모로 전체 투자규모의 74.7%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 경영업(10.6%), 전력,용수,가스생산 및 판매업(4.3%), 건설업(3.0%) 순

[그림] 2024년 한국의 대 베트남 주요 산업별 투자 현황

순번	산업분야	신규투자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백만USD)	중액투자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백만USD)	지분투자 및 주식매입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백만USD)	'24년 총투자금액 (백만USD)	투자비율
1	제조가공업	122	1,207.8	207	3,652.4	82	95.7	4,955.9	70.2%
2	전력, 용수 생산 및 판매업	2	897.8	1	95.2	1	0.4	993.4	14.1%
3	부동산경영업	11	416.5	9	4.3	10	1.9	422.8	6.0%
4	도소매 및 수리업	137	284.2	53	34.6	420	90.8	409.6	5.8%
5	전문과학기술	45	18.9	21	62.4	136	24.1	105.4	1.5%
6	정보통신업	32	6.1	16	20.9	59	12.5	39.6	0.5%
7	요식서비스업	22	16.9	9	9.2	62	10.6	36.6	0.5%
8	건설업	7	10.2	15	16.0	25	6.1	32.3	0.5%
9	농림수산업	1	11.0	-	-	4	0.7	11.7	0.2%
10	의료 및 사회복지업	1	0.2	1	0.6	3	10.9	11.7	0.2%
11	물류, 창고업	9	1.9	7	1.0	45	8.3	11.2	0.2%
12	교육업	2	7.7	2	2.9	3	0.4	11.0	0.2%
13	행정 및 지원사업	14	3.0	9	3.0	24	3.8	9.8	0.1%
14	금융, 보험업	3	3.0	1	0.1	1	0.0	3.1	0.0%
15	예술, 엔터테인먼트	1	1.0	-	-	3	0.6	1.6	0.0%
16	광산개발	-	-	-	-	1	1.4	1.4	0.0%
17	기타 서비스업	1	0.1	-	-	4	0.2	0.3	0.0%
	총계	410	2,886.3	351	3,902.6	883	268.5	7,057.3	100.0%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4.12.31. 기준

-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투자 진흥 및 비즈니스 연결 촉진을 위한 시장정보 제공, 투자지원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무역·투자 진흥 등 상담 지원, 시장 정보 제공
 - FTA(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관련 지원 및 상담제공, 베트남 경제·산업 동향, 소비자 트렌드, 법·규제 등 시장 리포트 및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여 현지 시장조사 역할 수행
 -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행사 등 현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온·오프라인 교역 연계 이벤트를 통해 상품·서비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
 - 베트남 정부 기관, 무역청/산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제도적 장애 해소 및 현지 정책 정보 공유 등
 - 2025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노이에서 대규모 비즈매칭 및 상담회 등 주최하는 등 한국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함
 - 2025년 한·베트남 무역 네트워킹 상담회 개최 및 2025 베트남 하노이 국제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한국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

라. 주요 면담 내용: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하노이 주재 관련 협회

□ 베트남 조세 행정의 구조적 특징

-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행정부 권한이 강하며 국세청의 해석·판단이 중요하게 작용
- 중국식 조세 모델을 참고하나, 중국만큼의 제도적 투명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

□ 베트남의 법인세제도 등 조세정책 변화 이슈

- 베트남은 기업의 50%가 법인세 미과세 대상이며 주로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간접세 위주로 과세하고 있음
- 2025년 개정법(CIT Law 2025, 2025 과세연도부터 시행)에 따라 베트남 법인세 체계는 기존 단일 20% 세율에서 기업 규모별 15%, 17%, 20%의 차등 세율 구조로 전환되었으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과 손금불산입 규정의 명문화 및 일부 과세소득 범위 확대 등으로 한국 기업의 실질 세부담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은 법인세 인센티브를 전략적 산업 중심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으로 전통적 저세율 혜택의 실질적 효과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법·정책 논의 과정에서는 산업별 인센티브 구조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첨단기술법 통과로 첨단·하이테크 산업 중심의 선택적 인센티브 정책 추진

□ 블랙마켓 및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관리 현황과 국제 조세 협력 필요성

- 블랙마켓 규모가 큰 베트남은 최근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전자신고·전자납부 시스템 전면 도입 등을 시도
- 베트남은 동남아 최대 암호화폐 시장이나 과세·행정적 관리 미흡
 - 암호화폐 거래는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한국·베트남 간 조세 협력 및 국제 조세 이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 관심 필요

마. 방문 사진



2.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가. 기관 개요

-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회(National Assembly of Vietnam)산하의 상임위원회로서, 국가 경제·재정·예산 정책에 대한 입법 심사와 감독을 담당하는 핵심 입법 기능 조직
 - 베트남 국회는 단일 입법기관으로 여러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경제·재정위원회는 경제, 재정, 예산 등 국가 재정정책·재정운영 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위원회임
 - 과거에는 경제위원회와 재정·예산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정책 일관성·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 및 재정 관련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재편되어 운영됨
 - 국가 재정정책 집행 감독, 예산안 및 결산 검토, 공공부채 감시, 법률·정책 자문 등의 역할 수행
 - 국가 재정정책 집행 감독: 중앙·지방 예산의 수입·지출 구조를 검토·분석하고 국가 재정정책이 법적·전략적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감독
 - 예산안 및 결산 검토: 중앙 예산안·중앙정부 배분 계획 수립·연간 재정 결산 결과 등을 심사하여 국회 본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지원
 - 공공부채 감시: 국가부채 안전한 한계 내 유지 여부, 공공부채 및 정부부채 관련 정책·계획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 및 권고
 - 법률·정책 자문: 세제, 금융규제, 경제·재정법령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국회가 국가 경제·재정 전략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나. 면담 개요

- 면담 일자 및 장소
 - 일자: 2025. 12. 16(화)
 - 장소: 베트남 국회의사당

□ 면담자

- 타 레 타인(Ta Le Thanh): 경제 재정과 과장
- 부 단 히엵(Vu Danh Hiep): 부과장
- 응우옌 비엵 쑤엵(Nguyen Viet Cuong): 실무관

다. 주요 면담 내용

□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면담 개요

-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대표단과 대한민국 국회 예산정책처 간 공식 면담을 통해 입법·재정·조세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및 운영 현황을 공유
- 베트남 측은 최근 경제위원회와 재정·예산위원회의 통합 배경 및 기능 확대에 대해 설명하며, 재정·조세·경제 정책을 포괄적으로 심사·감독하는 체계로 개편되었음을 강조
- 양 기관은 향후 대면 회의뿐 아니라 화상회의, 서면 질의응답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

□ 베트남 국회의 입법 절차 및 최근 제도 변화

- 기존 입법 절차는 정부 초안 제출 → 국회 위원회 심사 → 수정·보완 → 본회의 2회 심의 구조로 운영
- 최근 절차 개편을 통해 정부가 법안 초안 작성부터 의견 수렴, 보완, 최종안 마련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국회는 최종 심사 및 의결 기능에 집중
 - 입법 절차 간소화 및 심의 기간 단축을 통해 정책 추진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
- 국회는 위원회 중심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수행
- 헌법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권은 존재하나, 실제로는 대부분 정부 주도로 법안이 발의·처리되는 구조

- 국회 위원회의 재정·예산 심사 기능
 - 경제·재정위원회 법안 심사 시 재정 소요 및 예산 영향 분석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
 - 법률 통과로 인한 정부 예산 변화(세수 증감, 재정 부담 등)를 사전에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

- 독립적 분석·지원 조직 운영 현황
 -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완전 독립형 분석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위원회 내부 전문팀을 중심으로 법안·예산 분석 수행
 - 전문팀에서 1차 검토 후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
 - 재정·예산 분야는 외부 의견 수렴보다 위원회 내부 심사 기능에 중점

- 최근 중점 정책 과제 및 입법 방향
 - 중앙당이 제시한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민간 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지·확대가 핵심 과제로 설정
 -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육성, 국제 협력 강화, 의료·교육 분야 개혁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
 -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조세관리법 등 조세 관련 법률 개정 집중
 - 2026년 이후를 대비한 환경보호세(탄소세 포함 가능성) 관련 법안은 현재 정부 내부 검토 단계

- 가상자산(코인) 및 금융 정책 동향
 - 호치민·다낭 지역에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이 통과
 - 베트남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는 화폐가 아닌 투자 상품으로 인식
 - 등록된 거래소 설립 후 내·외국인 모두 거래 가능하도록 제도화 예정
 - 스테이블코인 등 화폐적 기능 인정은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음

- 외국인 투자 및 첨단기술 관련 법제
 - 투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 첨단기술법은 기존 법의 개정 형태로,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 기존 투자기업(삼성, LG 등)에 대한 혜택은 유지되며 신규 투자 유치에 중점

-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기 재정 대응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과제로 인식
 - 출산 장려 정책 확대 및 공무원·당원에 대한 출산 제한 규정 완화
 - 정년 연장(남성 최대 64세, 여성 최대 60세), 출산·육아 휴가 확대 등 제도 개선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주택 우선 분양 등 재정·복지 정책 병행 추진

- 경제위원회·재정위원회 통합의 배경과 기대 효과
 - 행정조직 간소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 개편의 일환
 - 경제·재정·예산 정책을 통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 일관성 강화
 - 중복 업무 해소 및 내부 협업 강화로 심사 품질 및 의사결정 속도 향상 기대

라. 방문 사진



3. 베트남 국세청

가. 기관 개요

- 베트남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국가 조세정책 집행과 세정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
 - 중앙 국세청을 중심으로 전국 성(省)·시 단위 세무국 및 하위 세무서로 구성된 전국 단위 조직 체계를 통해 베트남 전역의 세정 업무를 수행
 -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VAT), 특별소비세, 토지사용료 등 국내 조세 전반에 대한 부과·징수·관리 기능을 담당하며,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국세를 관할
 - 주요 기능 및 역할
 - 조세정책 집행: 국회에서 제·개정된 조세 관련 법률을 재정부를 통해 집행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참여
 - 세입 관리 및 징수: 연간 국가 세입 징수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세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보고
 - 납세자 관리: 법인·개인 납세자의 등록, 신고, 납부, 환급, 원천징수 체계를 운영
 - 세무조사 및 탈세 방지: 위험 기반 분석을 활용한 세무조사, 탈세·조세회피 방지 정책 추진

나. 면담 개요

□ 면담 일자 및 장소

- 일자: 2025. 12. 16(화)
- 장소: 베트남 국세청 529호 회의실

□ 면담자

- 베트남 국세청 행정사무국장
 - Leade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Department of Taxation of Viet Nam

- 조세정책 및 국제조세 과장
 - Leader of the Policy and International Taxation Division
- 납세협력·납세자서비스과장
 - Leader of the Compliance Management and Taxpayer Service Division
- 기술·디지털전환·자동화과장
 - Leader of Technology, Digital Transformation and Automation Division
- 세수전망·통계과장
 - Leader of the Revenue Forecasting and Statistics Division
- 세무절차관리과장
 - Leader of the Tax Procedure Management Division
- 전자상거래 과세 담당 부서장
 - Leader of the E-Commerce Taxation Sub-Department
- 관련 부서 실무자
 - Officials from relevant divisions

다. 주요 면담 내용

□ 베트남 국세청 면담 개요

- 베트남 국세청(GDT)과 대한민국 국회 예산정책처 대표단 간 공식 면담을 통해 조세정책, 세정 운영, 제도 개편 및 디지털 전환 현황을 공유
- 양국 국세 당국 간 인적 교류 및 방문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조세·재정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
- 한국 측 사전 질의서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중심의 심층 토의 방식으로 회의 진행

□ 양국 간 조세 분야 교류 및 협력 평가

- 한국-베트남 간 전략적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라 조세·재정 분야 정부기관 간 교류도 확대

- 조세행정, 정책 공유, 제도 개선 경험 교환이 양국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
 - 향후에도 상호 방문, 정보 교환 등을 통한 협력 지속 의지 표명
- 베트남 국회-국세청-정부 간 협력 구조
- 베트남 국세청은 재정부(MOF) 산하 정부기관으로, 국회와 직접적인 정보 교환·보고 체계는 존재하지 않음
 - 국세청 → 재정부 → 정부 → 국회 순의 간접 보고 구조로 운영
 - 국회는 조세·예산 정책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법률 집행 현황을 정부 보고를 통해 점검
 - 연간 세수 징수 계획, 정산 보고, 5개년 경제·재정 계획 역시 동일한 경로를 통해 국회에 제출
- 연간 세수 징수 계획 및 전망 체계
- 국세청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토지사용료 등 국세 부문에 대한 핵심 징수·전망 기능 담당
 - 재정부 내 정부예산국이 국세·관세·ODA 등을 통합하여 국가 전체 세입을 관리
 - 국세청은 연간 세수 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재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심사 후 연간 세수 목표 확정
 - 재정부는 지방정부 및 관세당국 의견을 종합 후 국회 경제재정위원회에 사전 제출
-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과세 제도 동향
- 디지털 자산은 첨단기술산업법상 자산으로 정의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저장·유통·거래되며 인증 가능한 자산
 - 암호자산, 암호화폐, 기타 디지털 자산으로 구분
 - 관련 법률은 2025년 6월 국회 통과,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
 - 전면 시행에 앞서 파일럿 사업 방식으로 제도 도입 중

□ 디지털 자산 과세 방식(예정)

- 디지털 자산 거래 및 양도는 증권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 예정
 - (법인세)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기업 및 거래소 운영 기업에 적용
 - (개인소득세) 개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적용 검토 중
- 거래소를 통한 원천징수 방식 도입 예정
 - 개인·외국인 투자자 수익 배분 전 일정 비율(예: 거래금액의 0.1%)을 원천징수

□ 디지털 자산 관리 조직 및 향후 계획

- 국세청 내 대기업 관리 부서 및 디지털 무역 전담 부서 운영
- 향후 암호자산·디지털 자산 과세 업무를 디지털 무역 부서로 일원화 예정
- 디지털 자산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시행규칙을 법 시행 이전까지 마련 중

□ FDI 유지 및 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 정책

-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는 조세 혜택 원칙 유지
- 투자법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사전 승인 절차 축소
- 기존 지역 중심 투자 혜택에서 산업·품목 중심 혜택으로 전환
 - 첨단기술, 디지털 경제, R&D, 고부가가치 제조업,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분야 중점 지원
- 기존 혜택 적용 기업은 잔여 혜택 기간 보장
 - 신규 제도가 더 유리한 경우 선택 적용 가능

□ 법인세·토지사용료 등 주요 조세 인센티브

- 일반 법인세율: 20%
 - 특정 산업·지역에 대해 10% 또는 17% 적용 가능
 - 최대 혜택 구조: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 대상 별도 우대세율(15~17%) 적용
- 토지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해 2020~2025년 기간 중 30% 인하
- 경제 위기 시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10% → 8%) 및 납부기한 연장

-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대응
 - OECD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에 따라 2024년부터 제도 적용
 - 해당 기업은 베트남 내 신고 의무 발생, 미신고 시 타 국가에서 추가 과세 가능, 투자 유지를 위해 관련 시행령 및 보완 정책 마련

- 개인소득세 제도 개편 동향
 -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기본공제 및 자녀 공제 수준 상향하였으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정액세 폐지
 - 매출액 신고 기반 과세로 전환
 - 개인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은 지속 증가
 - 2010년 1.1% → 2020년 1.3% → 최근 약 1.7%

- 조세행정 디지털화 및 납세 편의 제고
 - 전자신고·전자납부 시스템 전면 도입
 - 모바일 앱을 통해 법인세·개인소득세 상시 신고·납부 가능
 - 2025년 10월 기준 전자 납세 비율 99.2% 달성
 - 해외 플랫폼 사업자(페이스북, 구글, 틱톡 등) 대상 전자 포털 운영
 - 현재 약 170개 외국 기업이 포털을 통해 신고·납부

- 조세 관리법 개정 및 정책 방향
 - 2025년 12월 과세관리법 개정(법률 제108호) 통과
 - 투명성 제고, 디지털 기반 세정 관리, 납세자 중심 행정 구현이 목표
 - 탈세 방지 및 리스크 기반 세정 관리 강화
 - 국가 재정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상시 분석·감독 체계 구축

- 종합 평가
 - 베트남 국세청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조세행정 현대화 및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병행 추진
 - 디지털 자산 과세,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등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

- 한국의 조세 양성화 및 디지털 세정 경험은 향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

라. 방문 사진



